

속조몬 문화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인 조몬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500 년)에 이어 야요이시대(기원전 300 년~서기 300 년)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요이시대에는 벼농사, 철 및 청동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도입되어 남쪽에서부터 혼슈의 북단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혼슈에서 북쪽으로 100km 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홋카이도 사람들은 수렵채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교역을 통해 금속기 등 몇몇 신기술은 받아들여졌지만 벼농사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원인은 홋카이도의 기온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조몬시대 생활의 버팀목이었던 풍부한 천연자원이 전통적인 수렵채집 생활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런 수렵채집 생활에 의해 이곳에서 발전한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이런 시대는 속조몬시대(기원전 500 년~서기 600 년)라고 불립니다. 마을들은 낚시, 사냥, 식량 채집을 할 수 있는 해안가에 위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취락은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강은 수송로와 교역로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